

최단
기간

더현대 서울, 연매출 1조 돌파… ‘리테일 테라피’ 공간 주효

〈쇼핑을 통한 힐링〉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 자리매김
오픈 33개월만에 1조 점포 등극
“루이비통 등 글로벌 브랜드 확대”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이 오픈 2년 9개월 만에 연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국내 백화점 중 최단기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현대백화점은더현대 서울의올해 누적 매출이 1조41억원을 달성하면서 지난 2021년 2월 26일 오픈 후 33개월 만에 ‘연매출 1조원 점포’로 등극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종전 기록을 2년 2개월 앞당긴 것이다. 서울을 대표하는 트렌디 라이프스타일 공간을 표방한 더현대 서울이 이번 최단기간 1조원 돌파로 한국을 넘어 글로벌 눈높이에 맞는 쇼핑 메카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은 “더현대 서울은 단순 쇼핑 공간에 머물던 백화점에 대한 인식을 깨고 ‘오프라인의 재발견’, ‘공간 경험의 가치 극대화’ 등 리테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며 “글로벌 수준의 MD 역량과 더현대 서울에서만 만날 수 있는 K패션 브랜드 등 참신한 콘텐츠 발굴 노력, 이로 인한 객단가 상승 등이 최단기간 1조원 돌파



더현대 서울 사운즈포레스트 전경

/더현대

기록에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MZ로 복직이는 더현대 서울

더현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매출은 2022년 전년 대비 731.1% 증가한 데 이어, 올해 1~11월에는 891.7% 상승했다. 현대백화점 전체 외국인 매출 평균 신장률(305.2%)의 3배에 육박한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더현대 서울이 꼭 방문해야 하는 서울의 시그니처 관광 코스로 자리매김하면서다. 실제 더현대 서울 외국인 구매고객 중 20~30대 비중이 72.8%에 달했다.

외국인 집객에는 자연친화적인 인테리어와 넓은 휴게공간을 등 백화점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공간 구성에 외국인의 관심이 높은 K-컬처를 집대성한 전략이 주효했다. 올해에만 더현대 서울에선 BTS(3월), 르세라핌(5월), 아이브(6월), ITZY(8월), 블랙핑크(9월) 등 최정상 아이돌 그룹 관련 팝업스토어가 꾸준히 열렸다.

◆‘패션 명가’ 독보적 MD 경쟁력으로 객단가 상승 효과 뚜렷

더현대 서울은 물건만 사서 나가는 목적형 소비 공간으로만 인식되면 안된다는 판단에 천정 설계부터 재구성했다. 이에 전체 영업 면적(8만9100㎡)의 절반을 실내 조경이나 고객 휴식 공간으로 꾸미고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천

정 설계 등 기존에 없던 ‘리테일 테라피(쇼핑을 통한 힐링)’ 공간을 구현했다. 이에 휴식과 쇼핑까지 함께 즐기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오픈 초기 식품 매출이 두드러졌다.

실제 오픈 첫째 19.1%에 달했던 식품 비중은 2022년 16.5%, 올해 13.2%으로 서서히 감소한 반면, 영패션은 2021년 6.2% → 2022년 10.3% → 올해 13.9%로 식품 비중을 앞질렀다. 더현대 서울의 영패션 매출 비중은 더현대 서울을 제외한 현대백화점 전 점포 평균(8.2%)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객단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2021년 8만7854원이었던 더현대 서울

객단가는 지난해 9만3400원, 올해 10만 1904원으로 급증했다. 전년 대비 올해 객단가 신장률은 현대백화점 전점 평균(+1.1%)을 훌쩍 상회하는 9.1%에 달한다.

연평균 20%씩 성장해 온 해외명품 매출도 올해 전체 매출 중 25.6%를 차지하며 객단가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현대 서울 객단가는 식품을 제외하면 현대백화점 서울 점포 중 압구정본점, 무역센터점에 이어 3번째로 높다.

◆‘K패션 인큐베이터’ 자리매김

더현대 서울은 K패션 생태계 확장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오픈 당시 ‘쿠어’, ‘디스이즈네버댓’ 등 온라인 판매만 전개하던 브랜드를 업계 최초로 입점시킨 것을 비롯해 ‘미스치프’, ‘세터’, ‘드라운드’ 등 신진 브랜드를 연이어 선보이며 현재까지 200여 개의 한국 토종 브랜드가 더현대 서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진출했다.

K패션 시장 성장을 위해 현대백화점은 유망 브랜드를 발굴하고 있으며 브랜드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올해 패션 매출은 개점 첫해보다 113.2% 급증하며 오픈 이래 가장 높은 매출 비중(23.1%)을 기록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뉴스1

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용산 2기 체제 출범 이후 첫 당정 공공·민간정보시스템 일제점검 실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일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정보시스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도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와 관련해서 법안 통과와 더불어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행정전산망 개선 ▲중대재해법 유예 ▲늘봄학교 추진 계획 점검 등 3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고위당정 결과를 전했다.

우선 당정은 주민등록시스템, 모바일 신분증 등 연이은 전산망 장애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정부 대응체계와 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선 공공정보시스템(338개)과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이달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당정은 단기 개선책으로 노후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제시했고, 장기적으로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로 혁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방침이다.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

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할 방침이다.

늘봄학교 추진 확대와 관련해서,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 여성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고 신입생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새로 꾸려진 용산 2기 체제 출범 이후 첫 당정이었다. 김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새로 소임 맡은 분들에게 축하 인사드리고 제2기 팀이 더 큰 활약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축하를 전했다.

/서예진 기자 syj@

서울시, 세계최초 자율주행버스 정기 운행

합정~동대문 구간 9.8km 순환

서울시내에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버스가 정기 운행한다.

서울시는 4일 오후 11시30분부터 부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간선기능의 심야자율주행버스가 정기 운행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대학가와 대형 쇼핑몰 등이 밀집해 늦은 밤 이동이 많은 합정역~동대문역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9.8km를 순환한다. 일반 시내버스와 같은 규격의 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 2대가 투입된다.

운행 시간은 월~금요일 평일, 오후 11시30분부터 익일 오전 5시10분까지다. 합정역과 동대문역에서 밤 11시30분에 버스 1대가 각각 출발해 70분 간격으로 순환 운행한다.

합정역~홍대입구역~신촌역~아현역~서대문역~세종로(교)~종로1가~종로5가~동대문역(홍인지문) 구간에서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도로 중앙에 위치한 정류소 40곳(편도 20개소)에서 자유롭게 승하차하면 된다.

심야 자율주행버스가 운행을 시작하면 중앙정류소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실시간 도착 시간이 표출된다. 네이버나 다음포털 등에서 ‘심야 A21’ 노선을 검색하면 실시간 위치와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갑작스런 폭설 등으로 인해 안전상 운행이 중지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심야자율주행버스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일반 시내버스처럼 교통카드 태그



심야 자율주행버스.

/서울시

후 탑승하면 된다. 당분간은 무료로 운영된다. 무료이긴 하지만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반드시 교통카드를 찍어야 한다. 요금은 0원으로 처리되며, 환승 할인도 된다.

시 관계자는 “승하차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다른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요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일반 시내버스처럼 타고 내릴 때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요금은 ‘서울시 자율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심야버스 기본요금의 2500원보다는 낮게 책정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내년 청량리역까지 운행 구간(총 13.2km)을 연장기로 했다. 운영 결과를 토대로 단거리 순환이 아닌 시외곽~도심~시외곽을 잇는 장거리 운행 자율주행버스를 정규 노선화해 시민들이 시간제한 없이 24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김현정 기자 hjk1@